

유명 관광지 대신 '마을로 가는 소풍' 호응

정읍시 등 2015년부터 시행
자연속 뛰놀며 주민 삶 체험
올해 송죽마을 등 20곳 선정
10월까지 18개교 참여 예정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 기분 좋고, 정읍의 마을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읍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전북 정읍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외지의 유명 관광명소가 아닌 가까운 인근 마을로 소풍을 떠난다. '마을로 가는 소풍'이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마을소풍은 타 지역의 관광지와 놀이시설을 방문하던 공간의 일상적인 소풍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을 더 보고, 더 듣고, 더 알아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마을소풍은 지난 2015년부터 지역 학생들에게 정읍지역을 바로 알리기 위해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 정읍시공공체육시설화센터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양한 교실을 벗어나 마을을 찾아 자연을 관찰하고 주민들의 삶을 체험하는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배우는 체험 활동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학생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유익하면서도 마을 곳곳을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해설사들은 마



정읍시의 '마을로 가는 소풍'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읍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면면 영안마을 회관 광장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을공동체의 유래와 생활모습, 마을경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준다. 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편리하게 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마을지도도 제작해 배부해 주고 있다.

시는 올해 마을 소풍 운영과 관련해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전국 최

초로 마을연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던 송죽마을 등 모두 20개 마을을 선정했다. 마을소풍은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며 정읍지역 18개 초·중·고교 학생 1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마을소풍을 통해 아이들이 굴렁쇠를 굴리고, 솜바꼭질을 하

면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등 학원과 휴대 폰에서 벗어나 마을과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감수성을 키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도입해 학교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본격화

내일 추진위 창립총회

나주시가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 기념사업에 본격 나선다. 나주시는 전라도 정명 천년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라도(全羅道) 명칭은 고려 현종 9년(1018년)때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내년 10월18일이 꼭 1000년이 되는 날이다.

나주시는 오는 8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여는 등 기념사업의 첫발을 내디딘다.

시는 사업 추진의 핵심인 시민 협치를 토대로 나주 역사·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관심을 가진 시민, 향우 등 252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한다.

추진위는 기념사업 선정과 심의,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 조사연구 등을 한다.

천년 D-1년 기념음악회와 학술심포지엄 등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기념행사도 열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전북도와 함께 호남권 지자체 3곳이 정도(定道) 천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명칭부터 이견이 있는 등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라도 정명 천년은 나주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이자, 시민 화합을 통해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나주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m@

다시 또, 열쑤!

새로워진
전주대사습놀이
내일 개막



가야금·농악 등 10개 부문

심사위원 선정 투명성 제고

판소리 청중평가단 제도 도입

국악 명인·명창의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8일부터 나흘간 전북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다시 또, 열쑤!'를 주제로 한 제43회 대사습놀이에서는 판소리 명창, 판소리 일반, 가야금 병창, 명고수, 시조, 궁도, 농악, 기악, 무용, 민요 등 10개 부문 경연이 펼쳐진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지난해 불거진 '심사비리' 문제에도 이사진 갈등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파장을 겪었다. 이 때문에 매년 5월 치러지던 대회가 올해는 9월에야 열리게 됐다.

이런 잠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는 심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선정위

원회가 운영되고, 경연 부문별로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됐다. 또 심사위원 선정 때 제자와 6촌 이내 친·인척은 배제됐다.

특히 대사습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판소리 명창부 본선에 70명의 청중평가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사습놀이는 조선시대 판소리, 백일장, 무예 대회 등을 포함한 종합 대사로써 출품했다가 임진왜란 등으로 중단됐다.

1975년 전주에서 판소리, 농악, 무용, 시조, 궁도 등 5개 부문으로 부활한 뒤 매년 단오를 전후해 열리고 있다.

제1회 오정숙 명창을 비롯해 조상현, 이일주, 조통달, 은희진, 전인삼, 윤진철, 왕기서, 허은선 등 내로라하는 명창이 배출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

함평군 - 엄다면 가정 방문 서비스

냉장고 청소해 드려요

함평군 엄다면(면장 정인영)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채우고 비우고' 냉장고 청소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엄다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하는 이 사업은 가가호호방문단이 가정방문 시 비위생적인 냉장고를 청소하는 복지 서비스다. 협의체 위원과 방문단 봉사자들은 대상가구를 방문할 때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오래된 음식물을 버리고 냉장고와 부엌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특히 청소가 끝난 후엔 이들이 가져온 김치, 반찬을 채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연옥 엄다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은 “평소 노인분들이 냉장고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오래된 음식물은 아껴워 버리지 않고 방치해 이를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8130원

15.3% 인상... 월급 환산액 169만9170원

전북 군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3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보다 15.3%(1080원) 인상됐다. 또 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600원(7.9%)이 많은 액수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69만917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으로, 군산시에 속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전북도, 전주시에 이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9%가 많은 7050원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 청평면 730㎡ 전원생활주택 1억1500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장성 북하면 백양물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악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팬션용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주택·원룸·아파트

- 화성동 중흥파크건너편 대지 149㎡ 주택 160㎡ 삼기전용가능 2억3천
- 화성동 주택 화순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정도 사용 주택 60여평 3억3천 상담음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물 124㎡ 임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형 1억3천 매도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점 주거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3천

상가건물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물 997㎡ 전세 3억5천 월 1100선 25억5천
- 화성동 다가구 8세대 전세 2억2천 1억5천선 땅과 교환 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김점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원룸·다세대 부지

- 동명동 준주거지 294㎡ 법원과 조선대 사이 3억7천
- 신안동 상업지 358㎡ 신안지구대 부근 4억4천
- 광산구 옥동(평동) 1438㎡ 평동역에서 1.5km 15억3천

급매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9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인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 중흥동 모텔 대지 184㎡ 건물 652㎡ 은행 3억9천 수리해0합 찬만원
- 남구 송하동 신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김점 2억5천, 매도 1억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리조트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 문의.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